【 해외금융뉴스: 중국 】

중국 생보사, 내재가치 과대평가 의구심

□ 최근 발표되고 있는 생명보험회사들의 실적보고서에 따르면, 업계의 예상보다 투자수익률은 높고 사업비용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중국 생명보험사의 내재가치가 과대평가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됨.

□ 보험회사의 내재가치가 향상되기 위해서는 낮은 사업비용과 높은 투자수익이 필요조건이 될 수 있는데 최근 중국 생명보험회사 대부분은 사업비율[1)]이 대략 2.5%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너무 낮은 수준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제기됨.

o 메이저 3대 생명보험회사들의 사업비율은 중국생명(中國人壽)이 3.61%, 핑안생명(平安壽險)이 3.75%, 타이핑양생명(太平洋壽險)이 3.64%에 이르러 중국 생보사들의 평균 사업비율과 큰 차이를 보임.

1) 사업비율 = 사업비/(초회보험료+수입보험료) (출처: 차이나인터내셔널캐피털(中金公司, CICC))

o 한편, 투자수익률 측면에서 볼 때는 메이저 3대 생명보험사의 투자수익률도 너무 높은 수준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발생함.

- 메이저 3대 생명보험사의 투자수익률은 각각 32.4%, 42.8%, 44.1%로 보고되었는데 이는 다국적 생명보험사의 3~4배 수준으로서 전문가들도 통계치의 정확성에 강한 의구심을 보이고 있음.

□ 이차익 뿐만 아니라 비차익을 실현하기도 쉽지 않은 경영환경을 감안할 때 생명보험회사들의 내재가치는 실제보다 고평가되어 있다고 보여짐.

o 현재는 상당기간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이차익 뿐만 아니라 수당책정 자율권이 없는 상태에서 비차익을 실현하기도 어려운 경영환경이기 때문에 생명보험회사들의 투자수익률 및 비용 책정이 과대 내지는 과소상계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됨.

o 따라서 전문가들은 내재가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실적보고서상 투자수익률과 비용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고 추세임.

(중국보험보 3/20)